

교원 심리검사 지원 확대

도교육청, 저경력 교원 중심에서 모든 교원으로... 희망시 무료로 가능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원 심리검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5년 미만 저경력교원 20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심리검사 지원사업을 분청 소속 교원 2만명 전체로 넓힌 것이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면서 교직 사회의 집단 트라우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교원 심리검사를 전 교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심리검사를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통합스트레스 검사와 교사심리적응진검사 등을 무

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진료와 연계해 교사들의 상처 치유와 회복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치유센터를 통한 개인 상담 및 교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올 8월 까지 286명의 교원이 개인상담을, 85명의 교원이 심리치료 지원을 받았다. 예슬·원예치유 등 교원 맞춤형 집단 치유 프로그램은 48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8월까지 430여 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교사 치유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지난 8월 4일과 11일 두 차례 순창월랜드에서 교육활동 참여 및 피해 경험,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제공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원의 심리적 회복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면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전개공,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맞선'

전주교육대학교는 12일 분부동 2층 회의실에서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교육 활동의 장소 제공에 관한 협력 △교육 관련 사업 및 최신 정보 교류 △상호발전과 상호 증진에 관한 기타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병춘 총장은 “우리 대학교와 전북 개발공사가 손잡고 전북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식과 기술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12일 전주교육대학교 분부동 2층 회의실에서 박병춘 총장과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된 협약식이 열렸다.

전북도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28여억원 확보

우석대, 전주특화 K-방산 취업연계 인력 양성 등 총 10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북도의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에서 10개 과제가 선정, 사업비 약 2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정공모 분야 선정 과제로는 △전주특화 K-방산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박미라 교수·전주시) △이차전지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고재경 교수·전주시)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이홍기 교수·완주군) 등 3개다. 또한 자유공모 분야는 △드론 특화 분야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스 타기업 육성사업(이창현 교수·남원시) △장수군 산림 레포츠 분야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조현철 교수·장수군) △장수군 신북방 농식품 수출 취·창업 전문인력 양성사업(김진동 교수·장수군) △부안군 외

식 창업 전문인력 양성 및 음식관광 활성화와 프로젝트(이승후 교수·부안군) △미래를 준비하는 지속 가능한 순창군 미식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박기흥 교수·순창군) △진안 특화 융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임재운 교수·진안군) △완주 BSG 로컬 관광 1번지 프로젝트(김순화 교수·완주군) 등 7개다. 남천현 총장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시·군 등과 함께 협력해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대학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서 산학협력단장은 “지역 특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 인력들이 지역에 정착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 가치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미래교육으로의 전환 '방점'

도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 담당자 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1~12일 이틀간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및 업무담당자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스마트기기 보급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다불어, 스마트기기 다중 제어 SW 및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실제적 교육 사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도 병행했다. 먼저 11일에는 중·고등학교에 도입되는 학생 노트북 관리 소프트웨어 이용 방법과 교실 수업 사례발표가 이뤄졌다. 유병진 구글 연구회 교사가 '구글 Workspace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장지혜 MS 연구회 교사가 MS Teams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한 수업

사례를 각각 소개했다. 또 12일에는 초등학교에 도입되는 웨일북 이용방법과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전주초초조 허정수 교사가 '웨일북으로 만드는 Everyday Class Routine', 전주전라초 채나은 교사가 '웨일북으로 만드는 쉬운 디지털 수업', 군산초 김성은 교사가 '웨일 에듀로 만드는 교사교육과정', 군산봉문 초 유진호 교사가 '웨일 확장앱을 이용한 에듀테크 수업환경 혁신'에 대해 발표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내 6개 교원단체연합회는 1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학부모 민원상담 신청제 담당자로 교감 또는 교장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군산 무너도초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순직 인정해달라”

전북교총 등 도내 6개 교원단체연합, “온라인 학부모 민원상담 신청제 담당자로 교감 혹은 교장 지정해야”

전북교총 등 도내 6개 교원단체연합회는 1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학부모 민원상담 신청제 담당자로 교감 또는 교장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여한 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총은교사운동,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등 6곳이다. 이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전북교육청은 온라인 학부모 민원상담 신청제 업무 담당자로 교감 또는 교장선생님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전북교육청은 자체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사건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군산 무너도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신속히 밝혀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사립방식 개선을 통한 학교 내 갈등상황 방지 및 9월 4일 재량휴일 지정 독려 반복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다.

/정은성 기자

“교사 죽는 이 시국에 해외 출국? 유감”

전교조 전북지부, 서 교육감 호주 선진교육 시찰 차 출국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는 12일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교사가 자꾸만 죽어나가는 이 시점에 꼭 가야만 했는가라며, 유감의 논평을 냈다. 이날 논평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9일 호주 선진교육 시찰을 위해 출국했다. 9일부터 18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방문비용은 교육감 1,250만원, 교육청 직원 60만원이며, 이 비용은 교육청 예산에서 지출한다고 했다. 특히 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호주 방문 프로그램에는 B교육 생활교육, 다문화교육 관련 교육기반을 둘러보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하지

만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조현연 서울 시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불참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지부는 “16일에도 여덟 번째 집회가 열린다”면서 “이제까지 열린 전국교사노동조합 주최의 서울 집회에 다른 지역 교육감들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참석했지만 서거석 교육감은 단 한번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부는 “지난 9월 4일 연가·병가 승인과 관련해 학교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도 교사와 교원단체의 몫이었다”고 하소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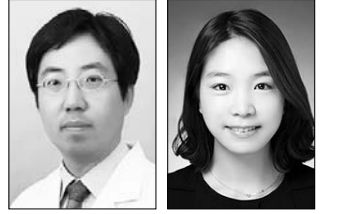
/정은성 기자

한·일 저출생 문제 논의의 장 마련

전북대 한국과학문명연구소, 최가영 교수 초청 콜로키엄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연구소(소장 신동원)는 13일 오후 4시 진수당 3층 회의실에서 일본 교마자와대학의 최가영 교수 초청, 제74회 콜로키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콜로키엄에서는 심각한 저출생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관련 대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최 교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을 주제로 한 발표를 듣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가영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일본 교토대학 법학 연구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받았다. 현재 교마자와대학 법학부 정치학과에서 정치경제학, 복지국가, 가족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한국의 대통령제와 보육정책: 가족주의 복지레짐의 변용’(일본어)이 있다. 관련 문의를 한국과학문명연구소(063-270-5804)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진공용 교수 채금주 교수

전북대, AI 이용 폐 이상 진단 가능성 최초 증명

진공용 교수·채금주 교수

전북대학교 진공용 교수(책임교수, 폐암검진 질관라센터장)와 채금주 교수(제1저자, 영상의학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간질성 폐 이상을 진단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발표해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래디올로지(Radiology)에 발표됐다. 래디올로지는 미국영상의학회(RSNA)가 발간하는 SCI급 국제학술지로, 글로벌 논문 피인용지수가 19.7에 이르는 영상의학 분야 최고 권위의 저널이다.

간질성 폐 이상은 흡연자에서 폐암 검진을 위해 촬영하는 저선량 흉부 CT에서 우연히 발견되며, 섬유성 폐 이상으로 진단되는 경우 심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흡연자에서 간질성 폐이상의 진단이 늦어지면 진행성 폐기능 감소와 호흡 부전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와 연관이 있어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진에 따르면 전북대병원과 울산대병원에서 국가 폐암검진을 시행한 3,118명 흡연자의 저선량 흉부 CT를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보다는 적지만 4%에서 간질성 폐 이상이 있었고, 이 중 섬유성 간질성 폐 이상이 있는 경우 추적검사 CT상 24%에서 진행됐음을 보고했다. 이는 아시아에서 국가폐암검진을 시행한 흡연자들의 간질성 폐 이상의 발생률을 세계에 처음으로 보고한 연구다. 특히 국가 폐암검진에서 간질성 폐 이상으로 진단된 저선량 흉부 CT를 인공지능을 이용해 진단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 간질성 폐질환 소견이 1.8%만 있어도 객관적으로 조기에 진단을 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정은성 기자



김성륜 교수 소순오 대학원생

전북대 김성륜 교수팀, 초전도 복합체 신규 매커니즘 규명

전북대학교 김성륜(유기소재섬유공학) 교수와 소순오(탄소융복합재료공학) 석사과정생은 충전제의 고품량화를 통한 연속화를 이취 초전도 복합체의 전도 특성이 발휘되는 매커니즘을 규명하고, 나아가 기존 퍼콜레이션 이론을 발전시킨 단계적 효과 이론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재료물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인 Materials Today Physics(IF:11.5)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기존 전도성 복합체에서 발생하는 전자의 터널링 저항 효과가 충전제의 연속화로 인한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에 의해 감소함에 따라 전자의 이동속도가 향상돼 우수한 전도 특성이 나타남을 실험으로 확인, 새롭게 제안한 단계적 효과 이론에 기초해 이러한 특성을 예측할 수 있음을 규명했다. 특히 제조된 초전도복합체는 기존 퍼콜레이션 이론의 예측치 대비 각각 382%, 238%, 55% 향상된 최대 4086 S/m, 50 fB 및 82%의 전기전도도, 전자기파 차폐 성능 및 습도 감지 특성을 나타냈다.

/정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